

문화광장



양 건 건축박사·제주 공공건축가

총괄·공공건축가가 생각하는 서귀포 문화광장 계획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안과 위기의 시대로 우리 사회를 몰아간다. 반면 이 상황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소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준에선 기존 선진국보다 더욱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은 건축계도 다름 아니다. 이미 2007년 건축기본법과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적 정비를 통하여 경제적 관점으로 보던 건축이 문화적 가치의 대상으로 전환돼 왔다.

이에 2019년 12월에 제주도는 '김용미 건축가(62)'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으며, 이어서 올해 2월에는 제1기 제주 공공건축가 34명을 선정함으로써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총괄·공공건축가 제도가 출범했다. 총괄·공공건축가들은 도시재생, 농·어촌 마을 활성화 계획, 공원·광장·가로등의 도시공간 계획, 공공건축 및 단위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공공예산이 투입돼 이뤄지는 제반 사업들에 기획·자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올해부터 모든 공공건축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기획'이 필수조건이 되며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공공건축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의무화돼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 '서귀포시 문화광장계획'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서귀포 문화광장은 서귀포시 동흥동 일원, 구 서귀포소방서 및 시민회관 자리에 약 9000㎡의

광장과 320m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예산규모 130억원의 사업이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광장에 대한 서귀포 시민들의 숙원이 담긴 사업으로 더욱 진중한 분위기에서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내내 총괄·공공건축가들의 의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서귀포 시민은 어떠한 광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장의 몇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민들의 휴식·여가의 공간으로서 공동체적 성찰의 삶을 제공하는 광장, 도시의 여백으로서 비워둬 자체의 잠재력으로 도시민들의 액티비티(축제, 공연 등의 문화적 행위)를 유발하는 개방성의 광장, 도시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구심성이 쌓여있는 상징성의 광장이 있는데, 과연 서귀포 문화광장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둘째로는 이름은 '광장'이라 했지만 담겨진 내용은 저류지, 공원, 광장의 성격이 혼재된 과육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광장으로서의 기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셋째로, 서귀포시의 문화벨트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좋으나 이중섭거리에서 매일 시장을 거쳐 예정중인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와의 연계 전략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거시적인 스케일의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자문회의를 마치고 돌아서며,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읽은 느낌이었다. 문화광장을 향한 여러 관계자들의 욕심들이 적층되어, 저류지와 조그만 소공원들 두고 문화광장이라 읽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향후 총괄·공공건축가의 자문의견이 사업계획에 얼마나 수용될지는 모르지만, 2024년 이후 서귀포에 가면 꼭 들러봐야 할 공공의 장소로 실현되기를 기다린다.

열린마당

인간은 지구에게 바이러스인 것일까?



이 유 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지구에게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인간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지구는 건강해지고 있으니 슬픈 웃음이 배어 나온다. 인간은 지구에게 바이러스인 것일까? 4월 22일은 50주년을 맞이한 지구의 날이다. 올해의 핵심 메시지는 'SOS 기후행동! 나의 지구를 구해줘'로 2020년 지구의 날이 지구에게 영원이 잊지 못할 날이 되도록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는 지난 16일부터 '필터 교체용 천연염색 면 마스크'가 제주도 내 어린이들에게 기부되는 '기후변화주간 어린이 캠페인' 2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웃음 지으며 실천하는 행동을 함께 나눔으로써 지구를 구하는 일에도 동참하고 보내 어린이들에게 마스크도 기부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다. 첫 번째는 '지구챙겨! 아두실천 챌린지'로 기후 변화의 주원인인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사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두 번째는 '지구챙겨! 소등실천 챌린지'로 기후변화주간인 4월 22일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고 별을 켜는 소등 실천에 참여하고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라는 캠페인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생각해 보고 이젠 행동할 때이다. 위 두가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관련 규정 미비 소극행정 '문책'

적극행정제도 활용 한뼘

○...제주도가 코로나19 등 신속을 요구하는 업무과정에서 절차적 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를 제주도감사위원회와 협의. 이에 도감사위는 27일 공문을 통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관계공직자들의 신분상 면책을 적극 지원하고 반면에 '관련규정이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문책을 강화할 계획. 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 등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 백규탁기자

연휴 방역 매뉴얼 발표

○...고희범 제주시장이 27일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에 18만명의 관광객 입도가 예상되면서 신속 대응팀과 특별상황실 운영 등 강화된 방역 매뉴얼을 전명. 고 시장은 이 날 기자회견을 찾아

연휴기간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게임장, 영화상영관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위생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명령 발부 계획도 발표. 고 시장은 "지금까지의 값진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광객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점인. 문미숙기자

온라인 학습 지원 만전

○...서귀포시는 초등학교 1~3학년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지역내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 지원에 만전. 서귀포시는 초등 1~3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배움지도사가 주1~2회 직접 가정방문, 영상시청·과제수행에 도움을 주고, 학교 수업 정상화 후에도 학습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 서귀포시 관계자는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은 건강강정지원센터 등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현병홍기자

사설

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 부족 질타

제주도교육청이 온라인 개학과 긴급돌봄 운영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긴급 돌봄 운영 모두 초유의 사안인 만큼 교육현장 중심으로 만반의 대응을 주문해 온 학부모와 도민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의원들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답 대응팀으로 온라인 개학 등을 준비할 필요성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

다들 많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긴급 돌봄 운영 모두 초유의 사안인 만큼 교육현장 중심으로 만반의 대응을 주문해 온 학부모와 도민들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의원들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답 대응팀으로 온라인 개학 등을 준비할 필요성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

차고지 위반 과태료, 너무 서두른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한 차고지증명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갖추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주거지 반경 1km 이내에 주차장 임대 등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것입니다. 특히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됩니다.

1회 위반시 40만원, 3회 이상부터는 60만원입니다. 현재는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변호판 영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위반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가 지나치게 행정명의로 가늠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안착하기에는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주시 도심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법정 주차면 확보했으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차고지만 확보한 채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 고 김원배 아버지 김해김공 형집(국가유공자, 前 구좌읍장, 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27일 04시 3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4월 2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29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 제주시 충혼묘지 부 인 김춘화 아 들 김원배 며느리 이명자 윤배 정삼희 상국 상배 딸 김영미 사 위 윤창완 장 손 김진걸 손 부 이윤정 ※ 연락처: 김원배 010-3336-0708 김윤배 010-8318-5452 김상국 010-6714-7177 김상배 010-2329-3334 김영미 010-3699-0831 윤창완 010-3693-8830

부 고 강승권(초롱박민속춤 대표) 어머니 제주부씨 갑숙(향년 97세)께서 서기 2020년 4월 26일 20시 47분경에 부처님 곁으로 귀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4월 28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4월 29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4층)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강승권 며느리 이영실 딸 정렬 사 위 양창원 승자 김동철 승렬 송화중 영자 이광호 ※ 연락처: 강승권 010-2033-5552 이영실 010-4058-9080 김동철 010-5149-1616 송화중 010-6633-037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이름짓는집 신생아 이름짓기, 개명, 이름풀이, 신수, 택일, 궁합 작명원칙에 따라 개성있고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법학사, 행정학석사, 철학박사, 역사학박사, 작명사 1급 용산절학관 서귀포시 신협앞 송월타을 옆집 박용산 010-4464-323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